2023-2 생활 속의 심리학 [12주차-1,2]

[관계심리학] 효과적인 의사소통

- 01 의사소통이란?
- 02 의사소통의 어려움
- 03 비언어적 의사소통
- 04 효과적인 의사소통

Contents

1. 의사소통이란?

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 → 대인간의 의사소통(대화)

■ 대화의 구조

- ▶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
- ▶ 말을 통해 표현되고
- ➤ 듣는 사람이 해석하여 인식하는

톱니바퀴 구조



1. 의사소통이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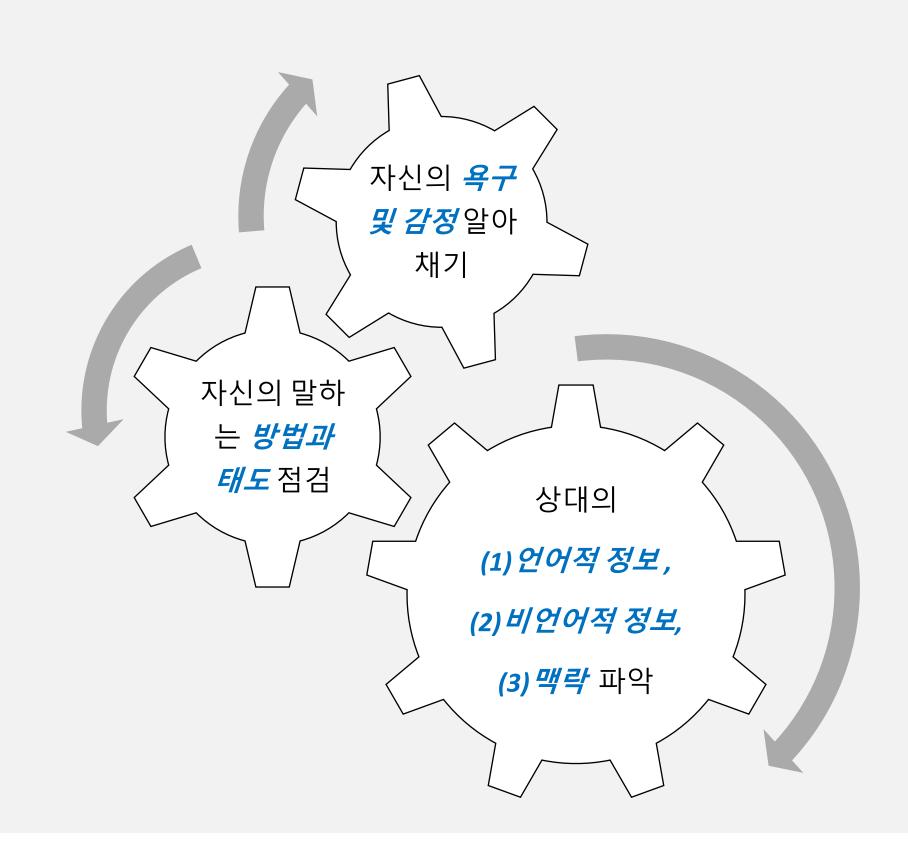


1. 의사소통이란?

■ 효과적인 대화란

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세지를 의도대로 전달하고, 듣는 사람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.

→ 즉, 서로의 마음을 잘 주고 받는 것!!



2.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필요성

-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관계의 만족을 높임(Cordova, Gee, & Warrem, 2005)
- 의사소통 능력이 좋을수록 정서조절 증가,
 높은 긍정적 정서 경험 및 분노/적대감 등의 부정적 정서 감소
- 그외, 일상생활 적응,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에도 영향



- 01 의사소통이란?
- 02 의사소통의 어려움
- 03 비언어적 의사소통
- 04 효과적인 의사소통

Contents

1. 말하는 사람의 대화전달 방식

산만형

- 명확한 주제 없이 말하는 유형
-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말해서 양쪽 모두 대화에 집중을 못하게 됨.
- 또는,지나치게 세부적인 정보까지 전달하여 상대방의 대화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움.

과신형

- 자신의 말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유형
- 대화의 목적이 타인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에 초점
- 또는, 자기 과신

독점형

- 자기 이야기만 하는 유형
- 자기중심적인 태도
- 타인에 대한 마음 조망 어려움
- 침묵, 또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

불안형

-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이 높아, 회피 또는 철회, 붕괴 반응 유형
- 의사소통 장면에서 불안과 관련된 신체반응
- 평가에 대한 두려움

2. 듣는 사람의 태도와 방식

다른 일과 비교하기

- 상대의 말을 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듣는 것 이상으로 평가적인 태도로 듣는 것

지레짐작하기

 상대의 말을 전체적 맥락 안에서 듣기보다 자기의 생각에 들어맞는 단서만을 찾아 생각을 확인하는 것

듣기 싫은 얘기 걸러 내기

- 상대의 강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, 회피하고 싶거나, 무시하고 싶을 때 상대의 말을 막아 버리는 것

3.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장벽

(1) 방어

- 상처를 받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지나친 관심
- 자신을 평가, 통제 또는 조종과 같이 자신이 타인으로 부터 위협 받는다고 느낄때 방어적으로 반응
- 타인이 우월한 방식으로 행동할 때, 또는 자신이 초라하다고 지각할때도 방어적 태도
- 자기충족적 예언

(2) 동기적 왜곡

- 실제로 들리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자 원하는 것을 들을 때 동기적 왜곡이 발생
- 자신의 개인적 견해와 모순되는 정보는 정서적 불편 유발. 불쾌 감정 피하기 위해 선택적 주의
- 진술 속에 의도가 담겨있지 않은 의미를 읽을 수 있고 잘못된 결론으로 비약(편집증적인 해석)

3.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장벽

(3) 자기몰두

- 즐거운 양방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자기집중적인 사람
- 자기몰두적인 사람 = 불량청취자
- 대화 상대는 자신의 욕구가 무시됐다고 느낌
- 대화란 정보의 상호공유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라는 규범을 당신이 무시한다면 타인들에게 소외당할 수 있음

(4) 게임하기

- 게임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한 동기를 감추고 예상되는 결과가 있는 조작적 상호작용(Berne, 1964)
- 예) 자신의 전 남자친구 언급할때 현 남자친구가 질투. 일부러 전 남자친구 언급, 떠보기 등
- 좋은 관계에 필수적인 신뢰와 존중을 없애고 나쁜감정을 유발시키는 반복적 게임

- 01 의사소통이란?
- 02 의사소통의 어려움
- 03 비언어적 의사소통
- 04 효과적인 의사소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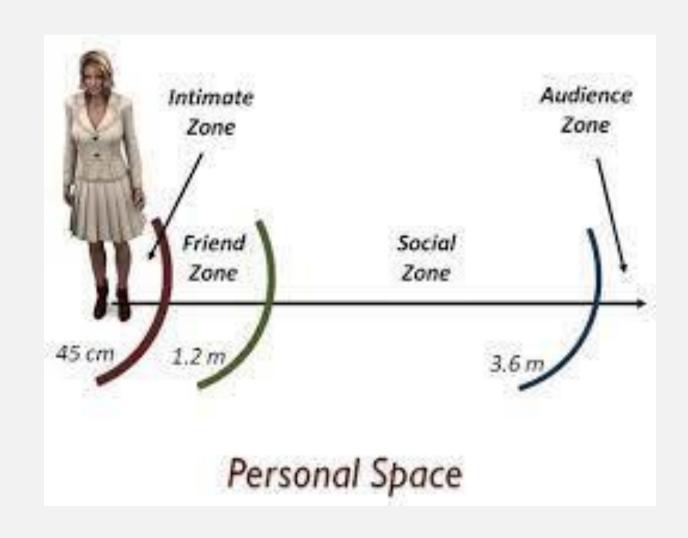
Contents

1.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원리

- 01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정서를 전달한다
- 02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채널은 다양한다(표정, 시선, 억양 등).
- 03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모호하다.
- 04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적 메시지와 모순될 수 있다.
- 05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문화에 기반을 두고있다.

01 개인공간

- 한 사람에게 '소속 ' 된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을 둘러싼 공간영역
- 선호하는 개인 거리의 양은 관계와 상황의 성질에 달려 있다.
- 미국 문화의 중산층에게 적절한 네개의 대인거리(Edward T., 1966)
- 심리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 비례.
- 개인공간의 침입은 불편을 유발 -> 개인의 사회적 영역 회복 시도
- 예) 낯선 사람과 작은 책상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면 몸의 방향을 바꾸거나 장벽(책더미)을 만들거나 다른 책상으로 이동.



Edward T. Hall(1966)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간에 일정 거리가 유지기를 원한다.

02 얼굴표정

- 대화 중 얼굴표정은 말하는 사람/듣는 사람의 정서 정보를 전달
- 발화 내용과 얼굴표정의 불일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함(언어적 메시지의 의미, 발화자의 특성 등)
- 각 사회에는 개인의 감정 표현의 적절성과 시기를 결정하는 규칙이 있음
- 문화차, 성차, 성격 등에 따라 얼굴표정 다름
 - 남성은 전형으로 여성보다 얼굴표정 덜보임. 이는 남성에게 그러한 표정의 제시를 억제하게 하는 사회적 압력과 관련된 결과(Kilmartin, 2007)
 - 자기감시가 높은 사람들이 자기 감시가 낮은 사람들보다 얼굴표정 관리를 더 잘함(Gangestad & Snyder, 2000)

03 시선 접촉

- 시선 접촉의 지속 시간이 중요(Bavelas, Coates, & Johnson, 2002)
 - 높은 수준의 시선 접촉을 하는 사람들은 효과적인 사교술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음
 - 말할 때 보다 들을 때 시선 마주침을 더 많이 함
- 감정의 강도를 전달하는 수단
 - 사랑에 빠진 커플들이 다른 커플들보다 서로 응시(Patterson, 1988)
 - 적당한 시선접촉은 긍정적 감정, 지나친 시선접촉(노려봄) 또는 시선 회피는 부정적 감정과 관련

04 부언어(paralanguage)

-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, 언어 메시지 자체의 내용보다는 다른 모든 음성 단서들
- 말의 속도: 말이 빠르면 행복하거나 두렵거나 초조, 느린 어조는 불확실하거나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을 때
- 말의 크기: 큰 음성은 흔히 분노, 작은 음성은 신중함, 슬픔, 위축됨
- 그외 발화양, 자주 쓰는 단어 등



- 01 의사소통이란?
- 02 의사소통의 어려움
- 03 비언어적 의사소통
- 04 효과적인 의사소통

Contents



01 들을 땐 소리보다 마음을 깊이 들어라

- 경청: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진심으로 듣고자 하는 태도
- 경청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?

무관심의 자세

-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았나요?
- 중간에 말을 자르고 있나요?
- 상대 이야기에 답을 주려 하나요?
- 자신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나요?
- 너무 긴장하거나 대화 내용과 맞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나요?

관심의 자세

- 거리는 적당한가요?
- 몸을 살짝 기울인 채 마주 보거나 사선으로 앉았나요?
- 눈을 적절히 맞추고 있나요?
- 적당히 고개짓과 끄덕임으로 반응하나요?
- 적절한 표정으로 반응하고 있나요?

02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질문을 하라

- 열린 질문을 통해 상대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(예: 기분 좋아? / 기분 어때?)
- 대화의 장에 상대를 초청하는 질문을 통해 상대를 안심시키고 대화를 이어지게 할 확률도 높일 수 있음

[열린 질문의 예]

"뭘 하고 싶은 거야?"

"그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니?"

"네 생각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겠니?"

"내가 뭘 잘못 말한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 줄래?"

03 반응할 땐 촉진적 공감을 하라

- 공감
 - **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생각의 틀**을 이용하여,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것
 - **상대방의 처지**나 **입장**에서 그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최대한 **인정**해 주고 **수용** 하려는 자세와 노력
- 공감하는 것은 상대방이 방어벽을 허물고 **신뢰와 친밀감**을 갖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함

- 표면적 공감: 상대방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것
- 촉진적 공감: 상대방이 스스로 표현한 것보다 더욱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소통하는 수준의 공감

03

반응할 땐 촉진적 공감을 하라

[화를 내며] "어쩌면 그렇게 전화 한 통 없어? 너무 무심한 거 아냐?"

공감

- 표면적 공감: 연락 없어서 서운했구나
- 촉진적 공감: 서운했구나. 자주 연락 하고 지냈으면 했어?

공감 아닌 반응

- 충고하기: 너가 먼저 연락해보면 되잖아.
 - 다음에 연락오면 너도 받지마.
- 분석/판단하기 : 네가 너무 성격이 예민한거 아냐? 걔가 너한테 관심이 없나보다
- 바로잡기: 걔가 무슨 일이 있겠지.

- 위로하기: 헤어지자고 연락온게 아니니 다행이지
- 동정: 진짜 너 불쌍하다
- 감정의 흐름 중지: 그렇게 기죽지 말고, 그만 잊어.
- 내 얘기 들려주기 : 너만 그런게 아니야. 나도 그런 일 겪었는데.

>>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원하는 것은 언어적·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상대방의 관심

03 반응할 땐 촉진적 공감을 하라

■ 다음 중 공감 반응에 해당되는 것은?

"나 요즘 살찐거 같아서 짜증나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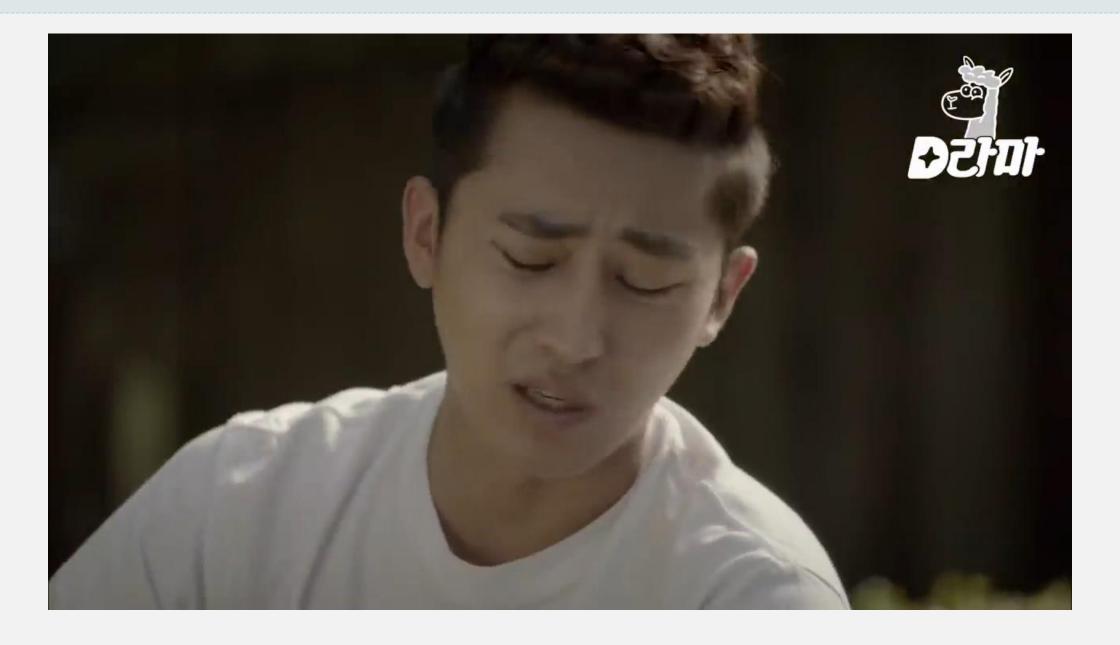
- ① 아냐~ 너가 뭐가 살이 쪄.
- ② 너가 그렇게 생각 할 만하네.
- ③ 넌 어떤 모습이어도 예뻐.

- ④ 나도. 나도 요즘 엄청 쪘어
- ⑤ 밖에 나가서 좀 뛰어
- ⑥ 기타 (

•

03 반응할 땐 촉진적 공감을 하라

■ 다음 중 공감 반응에 해당되는 것은?



- Marshall Rosenberg가 강조한 비폭력적인 삶의 언어(Nonviolent Communication;NVC)
- 긍정적인 면(사랑과 존중, 이해, 감사, 연민, 배려)이 마음을 채우고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
- '삶을 소외시키는 대화' 서로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특정한 말과 대화 방식

• 대표적인 유형의 대화

'평가와 판단'

비난, 모욕, 비하, 비교 등 포함

메시지	<u>의</u> 미
너무 너무 고집이 세.	
왜 그렇게 생각이 없나?	
자기밖에 모르는 구나?	
선생님은 권위적이세요	

■ 대화란

- 무언가 필요한 것을 주고받기 위해
- 의미를 메시지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과정
- 자각하기, 말하기, 듣기

의미를 명료하 게 주고 받음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

메시지	의미
너무 너무 고집이 세.	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.
왜 그렇게 생각이 없나?	신중하게 생각하기를 바래.
자기밖에 모르는 구나?	내 상황도 배려해 주었으면 해.
선생님은 권위적이세요	아랫사람들도 좀 존중해주셨으면 합니다.

■ 비폭력 대화 모델의 4요소

관찰

판단과 평가를 배제, 있는 그대로의 자극과 사실

욕구/필요

느낌이 비롯된 이면의 욕구 혹은 필요

느낌

자극에 대해 발생한 느낌(신체적, 정서적)

요청/부탁

욕구 혹은 필요가 충족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

■ 비폭력 대화 적용의 예

연인이 갑자기 무표정과 단답형으로 얘기하며 토라져 있는 상황. 이유는 모르겠음

① 관찰

행동을 구체적으로 관찰한다.

"내가 하는 말에 계속 응, 아니만 대답하면서 날 보지 않는 상황에"

② 느낌

관찰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다.

"내가 많이 답답하고 당황스러워."

③ 욕구

그러한 느낌을 일으키는 욕구, 가치관, 원하는 것을 찾아낸다.

"난 너랑 오늘 기분좋게 지내고 싶거든. 너도 나와 있는 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고"

④ 부탁

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한다.

"무엇때문에 그런지 얘기해 줄 수 있어?"

그룹토의

■ 다음 대화 장면에서 밑줄 친 대화를 비폭력 대화로 변형해 보기

■ 공감적 반응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?

그룹토의



그룹토의

[식사 상황]

아빠: 자, 봐봐. 아침에 기상해서 게임, 점심먹고 게임, 저녁 먹고 게임

엄마: 그 다음날도 얘기해야지, 그 다음날도.

아들: 제가 원하는 거네요.

아빠: 그게 너무 심하다는 거지. 잠 자는 시간보다 많잖아.

엄마: 그러면서 너는 엄마랑 대화도 없고, (말도) 안 통하고. 게임만 쳐다보는데 나랑 뭐하냐. 좀 나가서 산이라도 걷고, 대화라도 좀 하고.

아들: 산을 왜 걸어? 맨날 축구(연습) 하는데.

엄마: 그럼 집에 오지 말고 PC 방을 가. 눈치 안보고 하루 종일 할 수 있잖아.

아들: 상관 안 하면 되잖아.

엄마: 뭐라고?

아들: 밥 차려 놓으면, 우리가 알아서 먹고 우리가 치우면 되지.

엄마: (지금까지) 네가 치웠냐고. 단 한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내가 믿지.

아들: 그냥 상관 안했으면 좋겠어. 게임에 대해서는

엄마: 진짜 상관 안하고 살아볼까? 네가 어떻게 하고 살든지 상관 안하고 살아볼까?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.

- 그릇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 남-

3. I-message

■ 문장의 주체를 You 에서 I로 바꾸기

You-message	I-message
(너) 왜 늦었어?	나 오래 기다리는게 좀 힘들었어.
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?	그런 말 들으니 내 마음이 서운하다.